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 속

-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	----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	----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편편 플레이

색칠하기	58
미로찾기	59

*위드포토 *

*위드큐티스티커 *	61
------------	----

*교육활동지 *	63
----------	----





암송 구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

♥첫째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요.

♥둘째주♥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친구를 돋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셋째주♥

“차별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7절)

*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요.

♥넷째주♥

“친절의 시작,
사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베풀어요.

실천 내용

1.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족과 친구를 위해 하루 1개씩 친절을 베풀어요!
2.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2월 첫째주
2020년 2월 2일~8일



memory time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첫째주

♥ 주제 : 친절

♥ 암송구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 오늘의 주제 :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누가복음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율법교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나요? (25절)
- ②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있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27절)
- ③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1-32절)
- ④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나요? (34절)
- ⑤ 만약 우리가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나는 본문 말씀 속 제사장
이나 레위인의 모습일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반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 친구

SWK 친구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있냐고 그에게 되물었어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에 대해 말했지요.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교사는 또 다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이웃의 범위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봇고 싸맨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었어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돋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ray 우리 가정이 ‘이웃’의 범위를 더 넓히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0:1-18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 하다고들 합니다.
-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생략)
-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Q 단어사전

육정: 육체의 욕망

with
관찰

1. 바울은 무엇을 힘입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나요? (1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과

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2.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가요? (18절)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입니다.”

with
생각

바울은 편지로 볼 땐 굉장히 힘 있고 강하게 느껴졌으나,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유순하고 약해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교회에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넉넉한 마음으로 권면하며 편지를 썼어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랑하거나 높아지려 하지 않았어요.

with
결심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과 온유한 모습으로 대한 것처럼, 나도 비방하지 않기로 다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바울처럼, 나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내세워주시고,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1:1-15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을 잃지 말아요!”

1.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2.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3.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뱈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4.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5. 나는 저 **거울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자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7.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부패: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순결: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함

거울급: 세력이나 학문 따위가 뛰어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부류

with
관찰

1. 바울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편지를 쓰나요?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을 씁니다.”

2.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절)

“뱀이 하와를 간사한 꾀로 속인 것 같이, 생각이 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과 을 저버리는 것”

with
생각

바울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을 잊게 될까봐 무척 염려가 되었어요.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놓지 않기를 바라며, 조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아요. 잘못된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바울처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1:16-33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생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다섯 번이요,
-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고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셨습니다.
-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 꼭 자랑을 해야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파선 :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쳐 배가 파괴됨

고역 : 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



with
관찰

1. 바울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28절)

“...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하는

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2. 바울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하나요? (30절)

with
생각

바울은 매도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기도 했어요. 배가 부수어지는 파선도 당하고, 여러 위험을 당했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하신 고린도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약점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with
결심

어려움을 겪은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나도 사랑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잘 참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2:1-10 “약함을 자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 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께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나는 이것을 내께서 떠나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죽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 과대평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

• 하수인: 남의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

1. 주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7절)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를 주셨습니다.”

2.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하나요? (10절)

“.... 내가 그 때에, 오히려 내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해주셨어요.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했어요. 바울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약한 것으로 인해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재능과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나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요.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살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장 37절-





2월 둘째주
2020년 2월 9일~15일



memory time



선한 목자 예수님

둘째주

♥ 주제 : 친절

♥ 암송구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 오늘의 주제 : 선한 목자 예수님 ▷요한복음 10:11-15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친구를 돋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삶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1-12절)

②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14절)

③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었나요?

★ 교육 활동 -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해요!”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① 부록에 있는 찬송가 569장 1~4절까지의 가사를 읽어보세요.

②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스스로 5절의 가사를 적어보세요.

③ 선생님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작성한 가사를 이야기해보아요.

④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5절의 가사로 찬양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DE Family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산꾼을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와 산꾼은 둘 다 양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이 둘을 쉽게 구분 할 수 있어요. 산꾼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산꾼에게 양은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양을 지키고 보호해요. 목자에게 양은 사랑의 대상이고,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좋은 목자, 진짜 목자를 의미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가야할 길도 모른 채 떠돌아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가야할 길도 모른 채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산꾼처럼 도망가야 할까요? 우리는 선한 목자처럼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다가가 도와주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려주길 소망해요.

토론하기

- Q1.**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 Pray**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웃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2:11-21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16.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7.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18.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재물: 돈이나 그 외에 값나가는 모든 물건

비용: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착취: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이 갖지 않은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with
관찰

1.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14절)

“...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권하였나요? (18절)



with
생각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 방문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는 바울이 물질을 원한다고 모함(오해)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였어요.(고전 4:14-15)
그래서 편지를 통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는 결코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돈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with
결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고린도후서 13:1-13 “하나님의 능력”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다고 말하나요? (4절)

하나님의

2. 그리스도인, 성도는 무엇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나요? (8절)

진

with
생각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기를 바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온전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9절)

with
결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1:1-23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생략)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생략)
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2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21.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2.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샛날이 지났다.
24.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혼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지기 전의 상태)

공허: 아무것도 없이 텅 빙

번성: 한창 잘되어 성함 (잘자람)



**with
관찰**

1.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래에 적고, 암송해보아요. (1절)

2.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4절)

“그 빛이 하나님 …”

**with
생각**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바다와 땅의 식물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4, 10, 12, 18, 21, 25절)

**with
결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하셨지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1:24-2:3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6.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베풀셨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생육 : 낳아서 기름

번성 : 한창 잘되어 성함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with
관찰

1.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나요?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8절)

“... 하고 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with
결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피조물들을 잘 가꾸고 사랑해야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결심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마태복음 5장 43-47절 (새번역성경) / Matthew 5:43-47 (NIRV)

Love—Choosing to treat others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사랑-내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4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3.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Love your neighbor. (Leviticus 19:18) Hate your enemy.'
44. But here is what I tell you. Love your enemies. Pray for those who hurt you.
45. Then you will be children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He causes his sun to shine on evil people and good people. He sends rain on those who do right and those who don't.
46.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ward** will you get? Even the **tax collectors** do that.
47. If you greet only your own people, what more are you doing than others? Even people who are **ungodly** do that.

Vocabulary

Reward - 보상

Tax collector - 세리

Ungodly - 신앙심 없는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46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_____ will you get? Even the t_____
c_____ do that.

47 If you greet only your own people, what more are you doing than others?
Even people who are u_____ do that.

ENGLISH BIBLE STUDY



Interpretation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파격적인 말씀에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대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해요.

Application

Everyone faces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at some point of their lives. When that time comes, we tend to develop the feeling of hatred towards our enemies.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get along with those who are giving us such hard times. But Jesus tells us not to be patient with our enemies but to love them. Loving is an active and passionate feeling. It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do with the power of our personality. When a time comes that we encounter a person that treats us badly, we have to bow down to Jesus. We have to ask for help, and lay down all our feelings to Him. He is the only one that can fill us up with love that can flow, not only to our friends, but also to our enemies.

사람들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원수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자라게 되어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참아주라고 하지 않으셨고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감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성격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감정들을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친구들 뿐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Matthew 5:44, NIRV

마태복음 5장 44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But here is what I tell you. Love your enemies.

Pray for those who hurt you.

- Matthew 5:44, NIRV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장 37절-





2월 셋째주

2020년 2월 16일~22일



Memory time



차별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요!

셋째주

♥ 주제 : 친절

♥ 암송구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7절

♥ 오늘의 주제 차별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요! ▶요한복음 4:5-14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요.

★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들르신 곳인 어디인가요? (5절)
- ② 수가에 있는 우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6절)
- ③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건넨 말은 무엇인가요? (7절)
- ④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14절)
- ⑤ 우리 친구들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눠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 성경 퀴즈

Quiz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하는 동네를 지나가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우물에 물을 길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 “유대 사람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라고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 다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물에서 얻는 물은 마시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4절, 새번역)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친절하게 대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을 베풀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은 외롭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Pray 예수님이처럼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2:4-25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배필: 짹, 배우자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18절)

돕는

2. 아담은 여자를 보며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23절)

“..이는 내 중의 요 내 중의 이라..”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관심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누구 보다 잘 아셨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그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 있어도 그곳에서 영원히 혼자 산다면 마치 감옥과 같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짹을 만들어 줄 것을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 내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어요. 그에게서 떼어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어요.

with
결심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맡겨드릴 것을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3:1-24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 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4.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간교 : 간사하고 교활하다

with
관찰

1. 뱀은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 어떤 말로 설득했나요? (5절)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처럼 되어서...”

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8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몸인 것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간사한 뱀이 나타나 사람을 유혹했어요. 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인간의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죄를 범한 후 그들의 눈이 열렸으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몸을 가렸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우리의 주변에는 뱀과 같이 간사한 방법으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 인기와 행복을 가져다줄 것 같은 착각이 들어도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4:1-26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 이를 얻었다.”
2.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 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4. 아벨은 양 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 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 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6.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만배 : 짐승이 처음으로
낳는 새끼



with
관찰

1.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바쳤나요? (3~4절)

“...가인은 땅에서 거둔 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 떼 가운데서 의 기름기를 바쳤다...”

2.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만을 반기셨나요? (4절)



with
생각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의 두 아들을 낳았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곡식을 드리고 목자였던 아벨은 양이 첫 번째로 낳은 어린 양의 기름기를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참고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드린 제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비슷한 형식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with
결심

우리도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려요. 모두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우리도 매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5:1-31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2.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 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3. 아담은 백서른 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4.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팔백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5. 아담은 모두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
6. 셋은 백다섯 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7.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팔백칠 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8. 셋은 모두 구백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요? (1절)

의 형상

- 아담이 백서른 살에 낳은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셋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셋의 후손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은 자신의 형제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새로운 인물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with
결심

사람은 창조된 아래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장 37절-





2월 넷째주

2020년 2월 23일~2월 29일



memory time



친절의 시작,
사랑

넷째주

♥ 주제 : 친절

♥ 암송구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 오늘의 주제 친절의 시작, 사랑 ▶누가복음 6:27-38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베풀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나요? (27절)

② (O, X 퀴즈) 죄인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32절)

③ 나에게 있어 사랑하기 힘들고, 친절을 베풀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아요.

★ 교육활동 - “친절 나무, 사랑 걸렸네”

준비물 - 색연필, 싸인펜, 풀, 가위, 갈색종이(A4크기), A4용지

- ① 갈색종이에 나의 손부터 팔까지 대고 그려서 나무의 틀을 만들어주세요.
- ② 나무의 틀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 ③ 하트 나뭇잎에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한 행동을 적어요.
- ④ A4용지에 나무의 틀과 하트 나뭇잎을 잘라 붙여요.
- ⑤ 자신이 적은 내용들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dish* *Fika*

넷째주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웃을 사랑 하심으로 친절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원수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걸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번역, 2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와 원수 사이인 사람들에게도 친절,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은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 적이 있나요?

Pray 우리 가정이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게 해주세요.

GOD'S TIME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6:1-8 “나는 달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생략)

5.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하셨다.
7.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 되는구나."
8.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탄식: 한탄하여 한숨을 쉴 때 쓰는 말

1.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 하셨나요? (5절)

사람의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2.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누구만은 달랐나요? (8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땅 위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계획들만 세웠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 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실 일을 한 적이 없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산다고 해도, “나는 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6:9-22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9.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생략)
- 14.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 15.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삼백 **자**, 너비는 쉰 자, 높이는 서른 자로 하고,
- 16.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 18.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 19.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 남게 하여라.
- 20.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 남게 하여라.
-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 22.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방주: 네모진 모양의 배

자: 길이의 단위

언약: 말로 약속함



with
관찰

1.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9절)

“... 노아는 그 당대에 롭고 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하는 사람이었다.”

2. 하나님의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 하였나요?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였다. 꼭 하였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다짐하셨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짐승들 수컷과 암컷 한 쌍씩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완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짐승들을 데려와 넣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노아처럼 그대로 따르길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7:1-24 “하나님의 심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16.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짹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17. 땅 위에서는 흉수가 사십 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18.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19.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20.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열다섯 자나 더 불어났다.
21.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 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22.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23.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 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 남았다.
24. 물이 불어나서, 백오십 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노아가 방주로 들어 간 후 땅 위에서 홍수가 며칠이나 계속 되었나요? (17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	----------------------	---

2. 물이 불어나서 며칠 동안 땅을 뒤덮었나요? (24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	----------------------	----------------------	---

with
생각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들의 수컷과 암컷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어 사십일이나 계속되었고, 가장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겼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 외에 모든 생물이 죽었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원도, 심판도 모두 말씀대로 이루셨지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당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with
말씀

창세기 8:1-19 “나를 통해 우리 가족도”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2. 노아는 다시 **이례**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백한 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14. 둘째 달, 곧 그 달 스무 이렛날에, 땅이 다 말랐다.
15.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여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17.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징집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여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19. 모든 징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이례 : 일곱날, 칠일

생육 : 낳아서 기름

번성 : 세력을 확장하여

한창 성함

with
관찰

1. 언제 땅이 완전히 말랐나요? (14절)

" 달, 곧 그 달 날 ..."

2.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17절)

"네가 데리고 있는 ...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하고 땅에서 하게 하여라..."

with
생각

노아가 육백한 살이 되던 해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보자 땅이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짐승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 하셨어요. 그 말씀 후에 노아는 가족들과 짐승들과 무사히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족들까지 방주를 타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 덕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따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잠언 6:6-11, 새번역>

6.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7.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8.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9.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10.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하면,
11. 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잣니?

오늘 본문 말씀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 OO아(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개미도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가길 말씀하고 있어. 우리의 본능대로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놀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밤에도 우리 OO(이)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도 우리 OO(이)을/를 위해 성실하게 햇빛도 비춰주시니 감사해요. 성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OO(이)가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OO(이)가 되도록 우리 OO(이)을/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 OO(이)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너는 축복의 씨앗, 옹기장이>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쑥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오늘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너는 축복의 씨앗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OO(이)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OO(이)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어. 우리 OO(이)가 하나님의 세워주신 복의 통로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OO(이)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OO(이)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OO(이)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나쁜 꿈꾸지 않고, 꿍 잘 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도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OO(이)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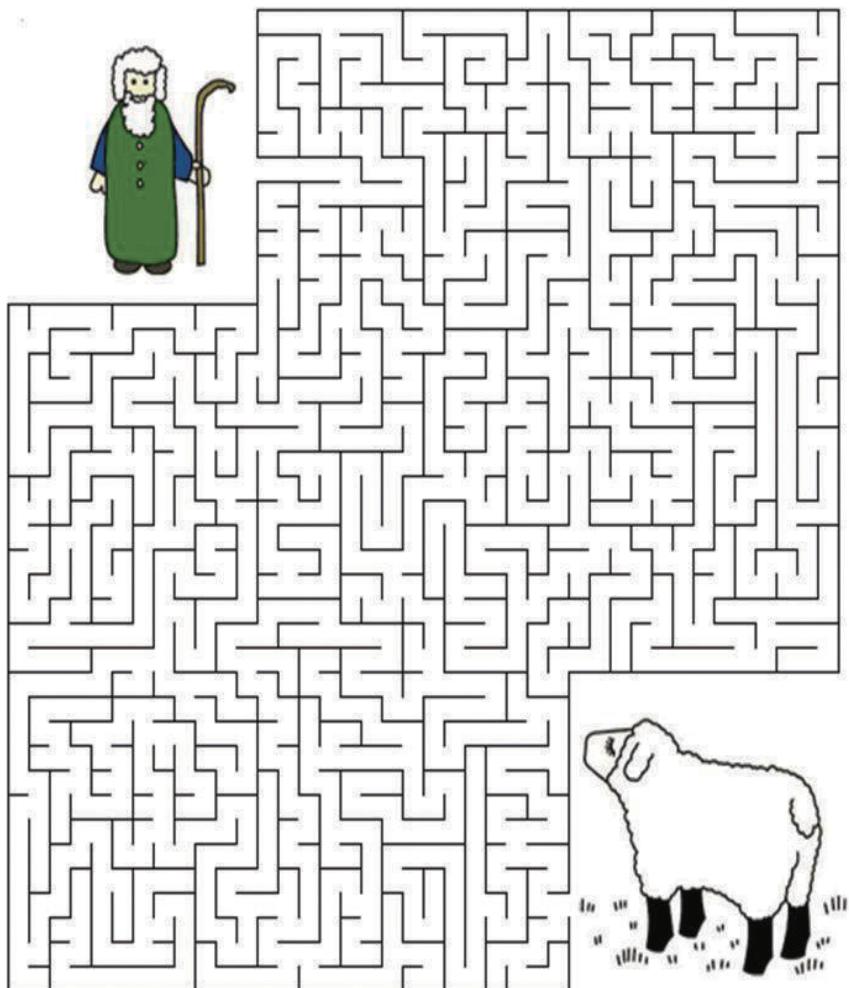
색 칠 하 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쁘게 색칠해요. 우리 친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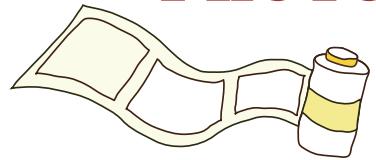


미로찾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인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어린 양을 구해보아요.



와드 PHOTO



초등2부



3-3 임채은

초등 2부



3-16 강현아

초등2부



4-12 서유경

초등2부



2월 QT +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D. A. Thrupp(1779~1847)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A. 10:11)(통 442)
BRADBURY: 9.7.9.7.8.7.
W. B. Bradbury, 1859

조금 빠르게 ♩ 108

E♭

B♭7

E♭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향상 인도하시고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 하여주시고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 가게하시고

5.

주를 풀밭 좋은 곳에 서를로 우 리 먹여주소서
 길을 잊은 양의 무리를 헤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넓고 크신 은혜 따라 유언계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5.

선한 목자 구세주 여 항상 인도하 소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여 기도 들어주 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여 지금 나아갑 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여 항상 인도하 소서

5.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 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소서
 아멘

5.

2월 넷째 주(2/23)

- 친절 나무, 사랑 걸렸네 -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장 37절-



